

공동체의 정의와 기독교·목회 상담: 내러티브의 회복을 중심으로

하재성*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기독교·목회상담자들에게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후 청년들의 실업 실패를 이해하고, 청년들의 개별적 내러티브를 경청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관점에서의 내러티브 공유와 소통의 중요성을 알리려는 것이다. 구직의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은 이야기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내러티브를 진솔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상담자들은 공감적 경청으로 그들을 환대함으로써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힘의 균형 곧 공의와 평안의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청년들이 느끼는 실업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심각한 문제로서, 자칫 경력뿐 아니라 삶의 연속성을 위해 중요한 이야기의 단절을 가져오고, 청년들의 생명마저 위협할 수 있다. 기독교·목회 상담자들은 실업으로 배제되고 특권이 철수된 청년들의 내러티브를 면밀하게 경청함으로써 변형된 내러티브와 영감을 제공할 수 있다. 내러티브는 공동체 형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도덕적 가치를 공유한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곧 살롬 공동체의 기반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구속 내러티브에 근거한 나눔의 형식이다. 기독교·목회상담자는 그리스도 구속의 복음에 근거한 비판적 사회 분석을 통해 정의를 추구하고, 배제와 압제를 경험하는 청년들의 서사성을 하나님의 내러티브와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주제어: 사회적 배제, 내러티브, 기독교·목회 상담, 정의, 살롬 공동체

• 논문 투고일: 2020년 9월 30일

• 논문 수정일: 2020년 10월 31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11월 5일

* 고려신학대학원 실천신학 교수

• 본 연구는 2020년도 고려신학대학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I. 여는 글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감염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나라가 대량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다. 한국 역시 청년 취업자의 수가 급감하고 체감 실업률이 26%에 이르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청년 실업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더라도 앞으로 10년간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경험이 적은 청년기의 특성상 실업은 이들에게 재정적 궁핍, 관계의 고립, 더 나아가 자살에 이르는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심지어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청년 37% 이상이 고용 불안정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면 국가는 이들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살피고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야만 한다.

청년 실업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사회적 배제' 현상이다. 공공정책에서 이들이 받아야 할 사회, 경제, 심리적 차원에서의 특권을 철수함으로써 무한경쟁의 자본주의적 폐해가 청년들의 어깨에 고스란히 올려지는 것이다. 다행히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청년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고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윤리학자 Michael Sandel은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복지과 의료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는 구성원의 품위 있는 삶과 실업과 같은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람의 현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내러티브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기서 내러티브란 구성원들이 자신의 가족, 조직, 역사, 문화에서 비롯된 이야기들을 하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말한다. 진리에 기초한 내러티브는 시장의 횡포를 견제하는 힘이며,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정의의 행위이다. 따라서 청년들의 내러티브는 우리가 속한 사회 공동체에서 그들만이 경험

하는 불공정한 제도들을 보게 하고, 그 자체로 개인과 사회의 치유와 변화를 추구한다.

동시에 내러티브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도덕적 서사성이다. 이야기는 도덕적 맥락 안에서 타인의 이야기와 소통되고 공유되며, 공유된 이야기는 Sandel이 말하는 공존과 공동체를 가능하게 한다. 시민은 서사성을 통해 공동체의 운명에 책임 있게 참여하게 된다. 공유된 내러티브는 구성원의 개별성과 구체성을 함께 포함함으로써 시민 자신이 갈등의 주체 이면서 동시에 해결자로서의 양면적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그에 따르면 내러티브는 공동선과 정의를 공론화하고, 시민의 연대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이상에 사로잡힌 절차적 민주주의 내지 신자유주의의 무모한 계층 분리를 저항하게 된다.

한편 기독교 윤리학자 Nicolas Wolterstorff는 성경 저자들이 이상(理想)의 무대 중앙에 두었던 인간 번영의 새로운 방식인 샬롬 공동체를 제안한다(Wolterstorff, 2014: 289). 샬롬은 평화로운 관계의 특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자신, 이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화를 말한다. 그에 따르면 구약 선지자들과 시가서 저자들의 마음에는 바로 이 샬롬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윤리와 정의가 함께 포함된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그 백성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내러티브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일상의 내러티브로 이어지는 샬롬 공동체를 지향하였다. 칠칠절에 하나님의 백성들 곧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배부르고 즐거워하는 공동체는 Sandel이 기대하는 공화적 공동체가 아닌 구속 이야기가 모티브가 되는 샬롬 공동체이다. 그것은 가난한 자와 부자의 내러티브가 함께 하나님께 들려지고, 서로가 견제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이다. 샬롬 공동체의 동기는 사랑이며,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기초하였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샬롬 공동체를 갈망하면서, 하나

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실업 청년들과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서사성을 회복해야 한다. 청년들의 사회적 배제와 소외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신자본주의의 약점 곧 효율성과 성과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고, 서사성과 공동체의 연대감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도덕성이 파편화되고 소비주의와 쾌락이 극대화되는 시대 상황 속에서 교회와 기독교 상담자들은 살롬 공동체를 지향하는 기독교 내러티브를 기준과 틀로 삼아 배제된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내러티브로 통합시키는 작업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독교 상담자는 청년들이 취업 과정과 직업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장벽과 한계에 대한 개별적 이야기들을 환영하고 경청해야 한다. 여전히 높은 경쟁 가운데 배제되거나 소외된 이들이 장벽에 갇힌 계층으로 남아 있지 않도록 가능한 통로들을 탐색하고, 미래를 향해 가는 사회의 통합된 이야기에 이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기독교·목회상담자들에게 실업 청년 개개인의 회복과 더불어 교회와 사회 공동체에 대한 ‘확대된’ 기독교적 치료와 회복의 이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II. 펴는 글

1. 청년 실업과 ‘사회적 배제’

2020년 5월 9일자 MBC 뉴스에 따르면 코로나19 전염병의 세계적인 확산 이후 지난 4월 미국의 실업률은 14%로, 일자리 2천 50만개가 사라졌다고 한다. 이는 2008년 미국 부동산 금융사태 이후 10년간 늘려온 일자리들을 불과 한 달 만에 전부 잃게 된 것과 같아서, 1929년 세계 대공

황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백악관 경제 보좌관 Kevin A. Hassett은 이 숫자가 5-6월에 20%까지 치솟아 대공황의 수치에 이를 수도 있다고 예견하였다.

한편 2020년 5월 13일, 한국의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만15-29세 청년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4만 5천 명이 감소하여 10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기업이 면접과 채용을 연기하고 휴업, 감원, 공무원 시험의 연기 등으로 취업이 막혀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26.6%로 높아졌다. 네 명에 한 명 이상이 실업 상태라는 뜻이다. 이것은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 같은 실업 사태가 장기화 되면 이 기간의 경력단절이 청년 개개인의 임금손실로 이어지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에 10년 이상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숙박, 음식, 서비스 등에 몰려있는데, 이번 취업자 감소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일자리의 저학력 여성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라고 YTN은 분석하였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일시 휴직으로서(유급 혹은 무급), 일자리에서 빠져나와 있는 100만 명이 앞으로 6개월간 다시 복귀하지 않으면 그대로 실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4월 실업률이 3월보다 0.2% 떨어진 4.2%라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 형편이 낫다기보다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55만 명이 아예 구직단념을 하고,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져버려서 오히려 더욱 악화된 상황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신규채용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다른 계층과 달리 청년실업은 개인에게 재정적 압박, 사회적 고립, 심지어 자살까지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김삼렬, 2016). 취업을 앞둔 2523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른 조사에 따르면

실직의 경험은 불안과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신희천, 장재윤, 이지영 2008). 구직 관련 청년들의 낮은 자존감과 자살 충동은 지속적인 현상이어서 2009년, 8.5%(이성균 2009: 578), 2014년, 10.6%의 청년들이 자살 충동을 느꼈으며, 그 가운데 64.6%는 구직에 따른 다른 청년들의 자살 충동에 공감하였다(부산 청년 유니온 2014). 이들은 10대 시절 대입 경쟁에 이미 지친 상태에서, 연이어 나타나는 취업 경쟁에서 안정적 일자리를 찾지 못한데서 오는 심리적 좌절과 갈등이 심각해진 결과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심지어 취업상태에 있었던 청년들의 스트레스도 30.6%가 ‘심함’, 6.4%가 ‘매우 심함’의 상태를 보였는데, 그 주체는 고졸(60.8%)의 비정규직 청년들(31.1%)이며, 원인은 여전히 ‘불안정한 미래’ (54.0%)로 가장 높았다. 이는 국가와 기업들에게 청년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서는 우선 일자리에 대한 양적 중심 정책을 버림으로써 청년들의 높은 이직률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준다. 아울러 구직 단계에서 소위 ‘스펙’을 쌓기 위해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장기적인 고용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 기업,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입안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청년실업이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문제인 이유는 청년들이 정상적인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으로부터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당하기 때문이다(이성균, 2009). 청년들의 사회적 배제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학자들은 “빈곤·실업·저소득과 같은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공공제도·사회적 관계, 심지어 사회심리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삶의 형태를 분석”한다(이성균, 2009: 569). 그 결과 주요 선진국들이 자본주의

의 황금기가 막을 내린 1980년대에 들어,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 취약계층의 지속적 빈곤, 실업자와 저소득층 증가,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연대의 파열(rupture of social bonds)”이 초래되었다(Kieselbach, 2001). 이것은 취약계층의 생계 자원 부족과 다양한 차원에서의 비정상성을 가져왔다. 유럽 연합에서는 이처럼 사회적으로 등장한 빈곤과 불평등, 차별과 소외 등의 개념을 통합하여 “사회적 배제”라는 말을 공식화 하였다. 이것은 낮은 교육수준의 유럽 청년들이 교육, 노동시장, 경제, 복지 등에서 배제되어 친구와 가족 관계조차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한국의 청년들은 대학/대학원 진학 등으로 고학력화와 남성 청년들의 군 복무 등으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많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을 뿐만 아니라 고학력자들이 몰리면서 취업 경쟁률은 높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특히 한국 청년들의 역량은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 기술 혁신에 가장 취약한 사무직과 숙련 생산직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결과 최상위권 전문직과 최하위권 노동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 구조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졸과 고졸의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짐으로써 고른 분포의 청년 고용이 어렵다(최진기, 2019). 그 결과 청년층의 빈곤 수준이 높고, 이들의 “최후 의존처”(last resort)라고 할 수 있는 중·장년층 부모가 조기 은퇴 내지 명예퇴직을 겪을 경우 이들에 대한 경제적 배제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이성균, 2009). 더군다나 20-30대의 청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상의 50% 가량이 부모인 것을 생각하면, 취업연령의 자녀를 가진 부모의 정신적·경제적 부담 역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한국고용정보원 2019: 148)

그 외에도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로 한국 청년 실업은 취업 자체가 아닌 일자리로부터의 이탈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분석과(남재량,

2006), 임금격차로 인한 중소기업 회피로 직업 탐색 기간이 길어진다는 분석(한요셉, 2017), 일본을 비롯한 OECD국가들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 근로자 비율, 양질의 일자리 부족 및 임시직 등 열악한 일자리의 높은 비중, 높은 대졸자 비율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 회피 현상이 나타난다는 분석(박상준, 장근호, 2019) 등이 있다. 일본에서는 청년들을 위하여 “청년 Hello Work, 신규졸업자 응원 Hello Work, 지역 청년 서포트스테이션, 마더스 Hello Work,... 프리터(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의 합성어), 니트족(Not in Education, Arbeit, or Training), 경력단절 여성 등 특정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시행해 왔다(박상준, 장근호, 2019: 90). 다행히 한국에서의 청년 고용보험 가입자가 2012년에 60.4%, 2015년에는 60.8%로 꾸준히 유지되었고,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청년고용장려금이나 청년지원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일할 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다.¹⁾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로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을 경험한 청년들은 가족을 비롯한 인간관계에서 소외되어 “스스로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사회의식을 나타낸다”(이성균 2009: 580).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 계획이 부재하여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혼선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 당당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1) 코로나 사태가 있었던 지난 3-4월에는 청년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다시 각각 17,000명, 47,000명 감소하였으나, 자금 조달과 분배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노출되면서, 최근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야 할 고용장려금이 청년층에 너무 치중되어 있어, 정부가 취업자들의 보험료가 세금처럼 분배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청년들을 향한 사회적 지원과 복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29011008>;
<https://www.fnnews.com/news/202005111733501376>;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476632/>

돕는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새삼 느끼게 되는 높은 진입 장벽과 소통의 부재 앞에서 이들이 느끼는 좌절의 이야기들은 알려지고 들려져야 한다. 그리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좌절과 그에 동반되는 정서를 공감하고 공유함으로써 이들의 현실적 책임을 시민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사회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2. 내러티브의 공유와 치유

2007년, 다산 기념 철학 강좌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하버드 대학의 철학자 Michael Sandel은 자신이 세계화는 반대하지 않으나, “시장 중심의 비민주적인 세계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Sandel, 2008: 336).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저임금국가로 흘러가서 그들의 구매력이 향상될 때 공정성과 대칭성이 향상되고, 선진국이 함께 공생하며 그들의 생활과 인권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관점을 천명하면서, 정부가 “복지와 의료, 교육 등의 문제에서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Sandel 2008: 335). 즉 사람들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사회와 국가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과 선을 시장이 결정하도록 버려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정치적 문제의 변혁에 있어서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이야기 하기(story-telling) 혹은 내러티브이다. 내러티브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현실 해석과 거기서 창출해 내는 의미는 사회적으로 형성된다”(Neuger, 2001: 86). 우리가 과거의 내러티브에 너무 깊이 천착해 있어서 때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 없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의미를 변경함으로써 미래의 선택을 다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Neuger, 2001: 86). Sandel은 “정치적 문제에서 추상적 권리를 호

소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설득이 반드시 함께 동반되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 내러티브 곧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Sandel, 2008: 333). 청년 실업 문제만 아니라 조기 퇴직자들의 삶에 사회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람의 현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게”하기 위한 또 다른 차원의 내러티브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Sandel, 2008: 333).

그렇다면 우선 구직의 어려움과 실업의 위협에 처한 청년들이 Sandel이 우려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극대화된 시장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감성 조작이 아닌 진리에 기초한 자신의 내러티브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에 기초하여 공동체와 사회 공동의 이익과 덕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는 타인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타인의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양수, 2008: 324).

그러므로 직업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진솔한 내러티브는 양날의 검과 같다. 첫째, 내러티브는 사회적으로 힘의 균형을 찾아가는 정의 추구의 행위이다. Sandel이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공동체의 문제로서 우리 사회의 청년층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고통은 비대칭적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일정한 형태의 폭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럴 때 이 구성원들이 자신의 진솔한 내러티브를 표현하는 것은 사회적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의 추구의 행위이다. 이야기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내러티브 형식 자체는 우리의 안정된 사회적 실재들을 뒤엎어 놓기도”하기 때문이다(Anderson & Foley, 1998/2012: 38).

둘째, 내러티브는 개인과 공동체의 치유를 지향한다. 내러티브가 우리를 이끄는 강력한 동력은 “인간 실존 자체가 내러티브 형식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Anderson & Foley, 1998/2012: 33). 그러므로

내러티브는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는 또한 이야기 그 자체이다. 그토록 상상력 넘치는 자기 해석 행위를 통해 화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합적으로 엮어낸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목시적 비극들의 “상실, 공포 그리고 죽음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들”을 때, 전쟁의 대학살과 잔학 행위를 직접 목격한 대피소의 여인들이라도 다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Anderson & Foley, 2012: 31-32). 질병으로 사무직에서 물러나 치료를 받고 있던 20대 청년의 내러티브는 매우 절망적이다.

지난 5개월간 어떤 사회활동이나 직장생활을 하지 못했다. 친구들에게서 카톡이 와도 어떻게 답장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남이 어떻게 나를 볼지에 대해 예민하게 되는 것 같다. 나만의 서사가 있는 게 아니어 가지고, ‘어떻게 지냈어?’ 라는 말에 대답할 것도 없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나는 이야기도 없고, 매번 ‘집에 있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존심도 좀 상하고,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하지? 말문이 막히는 순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어디로 숨어야 하나? 그런 생각도 한다...내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그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 그마저도 자기를 놔 버리는 마음이 드니까... (20대 후반 Y양, 2020년 2월 상담).

실업 상태의 이 청년은 계속 이어가야 할 자신의 서사 곧 내러티브를 잃었다. 청년들의 삶은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 연속성과 의미를 인정받아야 한다. 청년들의 경력단절은 이야기의 단절을 가져오고, 그것은 자칫 청년들의 생명마저 위협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내러티브를 공감적으로 경청해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공감의 강력한 소용돌이 작용을 통해 더욱 깊고, 어렵고, 두려운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며 영혼을 어루만지기까지 한다(Dittes, 1999: 105).

이것은 내러티브의 상담적 구조가 가진 치유적 기능이다. 청년들의

이야기는 내러티브화 되어 누군가에게 들려져야 한다. 그것이 멘토이든 혹은 상담자이든, 청년들의 내러티브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알려져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통제되거나 억눌려지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내러티브는 사회적 출구를 찾아 책임 있는 정책 수립으로 이어져야 한다.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위치에서 노력하면 실현 가능한 목표들을 제시하고 이들을 안내할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도록 직접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큰 목표를 구체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역할 모델이 필요하다”(오재호, 2018: 10). 특히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어느 단계에서 멈추어버린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멘토를 세워주고, 물질적 성과만이 아닌 “성장 과정에서 얻은 정신적 경험과 새로운 기회를 함께 물려 주어야” 한다(오재호, 2018: 10).

서울에 거주하는 20-30대의 ‘꿈’에 대하여 조사한 한 연구는 “청년 담론을 지배하고 있는 비관론과 달리 청년의 꿈을 새로운 측면에서 접근하였을 때 이들이 보여주는 자신감과 주도성의 수준은 이들을 포기과 좌절의 세대로 선불리 부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성연주, 김지애, 2017: 161-175, 174-75). 높은 실업률 때문에 절망적인 형편이라도 청년들의 내러티브가 공유됨으로써 새로운 꿈의 내러티브로 변형될 수 있다. 공유된 내러티브는 “타인에게 자신과 자신의 세계를 드러내 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만들고, 우리를 결속시키는 공동체를 지탱”한다(Anderson & Foley, 1998/2012: 35). 그렇다면 그들을 상담하고 경청하는 상담자는 그 변형과 희망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3. 내러티브의 공동체성과 정의

Alasdair MacIntyre는 그의 책 『덕의 상실』에서 이야기하는 존재, 서사적 탐색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소개한다(Sandel, 2010: 310). 그는 인간이 서사성을 가진 존재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의 도덕적·당위적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를 먼저 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야기 곧 서사는 도덕적 행위자인 우리 인간들이 목적과 목표에 도달하는 길을 제시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더라도 여전히 삶을 미래로 이끌어가는 형식이다.

이야기는 공동체적이어서 도덕적 행위란 자신이 속한 이야기 속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자신이 추구하는 도덕적 이익이란 같은 이야기를 공유한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가능하다. “MacIntyre에게 도덕적 고민의 서사적 또는 목적론적 측면은(아리스토텔레스에게 그랬듯이) 전체의 일부라는 소속과 밀접히 연관된다”(Sandel, 2010: 311).

그렇다면 나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하는 이야기와 부합되어야 한다. 이야기의 시선과 해석이 상대방의 그것들과 맞아떨어져야 하고 고립된 삶의 내러티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본질을 생각할 때, 서사성은 공동체의 형성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만일 “스토리텔링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공통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공유된 의미와 가치들로 구성된 공동체 형성의 잠재력을 갖는다”(Anderson & Foley, 1998/2012: 40).

Sandel은 타인과의 공존과 논의 가운데 인간은 개인의 참된 존재와 진정한 가치를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만남과 논의 안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와 진정한 가치에 대한 해석을 발견하게 된다. 개인의 가치를 공공의 가치로 승화시키는 것을 가리켜 그는 “공화주의적 이상” 혹은 “민주주의적 과정”이라 불렀다(이양수, 2008: 324). 그가

추구하는 공공철학은 “개인의 삶의 가치를 포괄하여 나타나는 개인의 정체성”과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가치에 의해 형성되는 공적 정체성”을 연속성의 관점에서 파악한다(이양수, 2008: 322). 그는 “각자가 처한 정치적 조건을 이해”하고 또 “왜 특정한 행위가 필요한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론보다 이야기를 중심으로 정치적 수사법을 사용할 필요성을 역설한다(Sandel, 2008: 333). 자기를 해석하는 내러티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논증과 원리의 습득 이상으로 “사람의 현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정치적 설득의 과정에서 “정치 상황에 대한 더욱 완전하고 더욱 진실한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한다(Sandel, 2008: 333).

따라서 그가 말하는 서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란 공동체 안에서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 “충직과 책임이라는 도덕적 힘”을 함께 고민하는 인간이다(Sandel, 2010: 314). 서사성이 중시하는 공동체나 권리의 개념은 단순히 “다수의 이해를 대변하는 하나의 포장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도덕적 자질을 지닌 시민이 스스로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참여”를 통해 “한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시민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Sandel, 2008: 316).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시민의 서사성은 시민의 책임 있는 참여를 뜻하며, 개인의 서사성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의 서사성과 일관성을 갖는다. 개인의 서사성은 특정한 가치를 중시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매몰되지 않고 스스로의 구체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비판적 활동으로 이어진다. 개인의 비판적 서사성에서 Sandel이 중요시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자신의 공동체를 무편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순수 반성’ 보다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의 추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찾아야 하는 ‘내재적 사회 비판’의 입장이다”(Sandel, 2008: 312). 경험에 대한 자기반성과 또 다른 미래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투영, 부여된 질서나 의무에 대한 단순한 순종을 넘는 공동체의 가치 선택으로 더 나은 완성을 추구하는 인격 형성

기획으로서의 정치적 삶이 곧 그가 추구하는 공공철학이 추구하는 가치이며 철학적 실천이다.

서사성에 기초한 Sandel의 정치철학은 “사회 성원의 이해관계나 특정의 삶의 가치를” 유리시키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담지한 도덕적 주체로서의 자아 즉 스스로 “사회의 갈등의 주체”이면서도 “동시에 해결자”로서의 도덕적 책임 능력을 전제한다(이양수, 2008: 318-19). 이러한 그의 철학은 근대 서구에서 등장한 ‘자유롭게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율적 자아’라는 정치적 행위자를 가정하는 ‘절차적 자유주의’의 허구성을 비판한 데서 나왔다. 그에 따르면 절차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시민의 자유 확보에만 관심을 가질 뿐 시민으로서의 특별한 가치나 미덕을 요구하지 못한다. 절차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어떤 삶의 가치를 배제하고 정의의 원칙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가정으로서, “정치적 활동의 구성 요건인 자기 비판적 과정을 무시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이것은 곧 “삶의 가치와 어떤 관계도 갖지 않는다는... ‘무연고의 자아’(unencumbered self)를 양산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가치를 공동체에 실현하려는” 참다운 정치적 과정과 정치적 행위자를 방해함으로써 그릇된 정의의 원칙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이양수, 2008: 315).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권리로서의 자유란 개인의 선택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시민적 자유 또는 공화주의적 자유”이다(Sandel, 2008: 316). 여기에서 비롯된 정의의 개념은 인간 행위를 규제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 속에서 충돌하는 가치들을 해소할 뿐 아니라 서로 비등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잣대 구실을 한다”(이양수, 2008: 317). 그가 말하는 정의로운 정치적 행위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자기 존재 속에 자기반성의 능력과 자기반성의 공간을 소유한 사람이다.

정치적 행위자의 자기반성 능력은 자아의 해석으로 이어지며, 정의의 실현을 위해 서로를 인정하는 ‘서로성’ (dialogical relation)과 ‘사이좋은’ (friendship)이라는 공동체의 가치가 공유되어야 한다. 모든 해석은 언어와 언어 공동체를 전제하며, 인간은 서로성의 공간에 함께 존재함을 가정한다. 그렇다면 서사성의 관점에서 자기 해석이란 혼자만의 고립된 해석일 수 없으며, 오직 “그 스스로의 이야기(narrative)를 또 다른 자기인 남과의 나눔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은 곧 ‘자신의 권리’를 찾기만 하는 절차적 자유주의자들의 가정을 넘어, “공동체의 선과 운명을 공유하는 정치적 자유를 실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자기 이해의 공유를 통한 지속적인 역사 공동체에의 적극적 참여를 뜻한다(이양수, 2008: 321).

정의와 공동선에 관한 그의 논의에서 Sandel은 정의에 관한 종교적 신념의 중요성을 오히려 역설한다.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진보주의자들의 정치 논리에 반대하여 그는 “도덕적 · 종교적 신념은 정치와 법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단언한다(Sandel 2010, 343).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일상의 삶에 희망과 가치를 불어넣기 위한 종교적 목적의식과 서사적 궤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신앙 친화적 공적 이성을 끌어안”음으로써 “본질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정의와 권리의 문제를 [바람직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Sandel, 2010: 349).

Sandel이 말하는 정의의 개념은 공리나 행복의 극대화, 혹은 선택의 자유 존중이 아닌,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다(Sandel, 2010: 360). 왜냐하면 정의란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Sandel, 2010: 361). 이를 위해 정의로운 사회는 강한 공동체 의식과 더불어 공동의 선에 헌신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 시장이 사회제도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도덕적 한계를 공론

화하며, 불평등과 빈부격차로 민주시민의 연대의식이 약화되거나 삶이 괴리되지 않도록 단순한 소득 재분배가 아닌 공공서비스 재개를 위한 공동선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도덕에 기초한 정치를 하기 위해 시민들의 도덕적 · 종교적 신념에 도전, 경쟁, 경청, 학습하면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4. 살롬 공동체와 공의

기독교 윤리학자 Wolterstorff가 말하는 살롬 공동체는 곧 ‘윤리적 공동체’이다. 살롬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과 자연과 조화롭게 존재하고 그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공동체이다”(Wolterstorff, 1983: 290). 살롬은 보통 책임 있는 행동을 포함한다. 그것은 다양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것인데, 하나님, 이웃, 자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들을 포함한다. 살롬은 그 관계 속에 있는 구성원과의 기쁨과 행복의 요소를 포함한다.

동시에 “정의는 살롬의 기반이다”(Wolterstorff, 1983: 342). 구약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신10:18).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살롬의 실현을 위하여 “불의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잠재력을 발전시키면서, 살롬이 이 세계 안으로 침입해 들어오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Wolterstorff, 1983: 342).

예를 들어,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소산과 수확의 근원[은...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에 근거]”하고 있다(하재성, 2019, 70). 특히 칠칠절은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 즉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지켜져야 했는데 이는

공의와 나눔의 근거가 구원론에 있음을 말해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절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자신들만의 구속사와 연결할 수 있었다”(Wright, 2017: 291).

신명기의 저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신 16:11)들이 함께 노동하지 않는 안식과 성회에 참여하라고 명령한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칠칠절에 ‘함께’ 장막을 치고, ‘함께’ 배부르며,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신16:11) 하도록 요구받았다.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서 개인주의적인 절기 수행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하재성 2019, 77). 신명기 주석의 저자 Chris Wright는 “모든 사람이, 특히 가난한 사람들, 가족이 없는 사람들, 땅이 없는 사람들이 이 절기의 수혜자여야” 한다고 말한다(Wright, 2017: 289).

절기에서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일 년 내내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사회·경제적으로 힘없는 자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만 했다(Wright, 2017: 291). 그것은 하나님의 출애굽 구속 내러티브를 기억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았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동시에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과 무관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살롬을 개인에게 맡기지 않으셨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3년마다 한 번씩 십일조를 드리는 제도를 명령하셨다(신14:28-29).

따라서 가난한 이들이 배고프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들의 “일상에서 추수 밭에 남겨진 곡식 한 뭇과 감람나무에 남은 가지, 포도나무의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의 것이었다(신24:19-22)”(하재성, 2019: 76). 이 과정에서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악한 눈으로 바라본 사람 ‘너를’ “여호와께 호소”할 것이며,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다(신15:9).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만 아니라, 먹을 것을 주고서도 멸시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가난한 사람의 특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초월적인 서사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음을 모세는 경고하고 있다.

서사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어서, 매 3년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십일조를 드린 후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청구할 수 있었다: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신26:13-15). 배고픈 자들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소유와 재산을 해치지 말아야 할 도리와 경계선은 있었다. 가난한 자가 배가 고파서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 밭에 들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그릇에 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이웃에게 주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그 이웃의 소유를 존중하게 하신다.

가난한 자가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을 수는 있으나 거기에 낫을 대는 것은 소유권을 맡은 이웃을 무시하는 절도행위이다(신23:24-25). 살롬의 땅에서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게 하였고, 두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잠22:2). 기업을 가진 자들은 자발적이고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탐욕에 갇히지 않아야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이웃의 소유권을 업신여기지 말며, 동시에 “가난한 자를 확대하는 가난한 자”가 되는 심판을 자초해서도 안 된다(잠28:3).

하나님이 “민족 전체에 내리신 축복을 통해 “먹고 배부르게” 하는 일은 공적 의무였다... [이것은] 오직 축복을 나눔으로써 축복이 계속될 터였다”(Wright, 2017: 267). 신명기의 살롬은 개인적 실천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겨야 할 영적 제도였다. 동시에 그것은 세대를 이어 전수해야 할 거대한 구원 내러티브의 구체적인 적용

이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절기를 준수함으로 내러티브로 이어지고, 내러티브를 통해 다음 세대에 전달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거대 담론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족의 생존과 직결된 것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하재성, 2019, 67).

Wolterstorff는 메시아의 빛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료 인간에게 보여주어야 할 덕목은 한 마디로 ‘사랑’ 이라고 말한다. Sandel의 철학적 관점과 달리, 그는 성경적 관점에서 ‘정의’ 는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Wolterstorff, 1983: 293). 그에 따르면 구약 후기 선지서들의 관심의 초점이 “과부, 이방인, 고아, 작은 자들, 소리를 내지 못하는 자들, 억압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백 번째 사람, 바깥에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말한다(Wolterstorff, 1983: 293-94).

물론 그의 말은 한편으로 옳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르기도 하다. 예컨대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 어다”라고 외친 아모스(5:24)의 출발점은 단순히 가난한 자들의 억압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우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 [곧 우상]에 미혹되었”다(암 2:4). 그들이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며 율법의 첫 계명인 하나님 사랑을 버렸을 때, 그들의 행위는 결국 거짓 저울로 속이고, 힘없는 자를 [돈으로] 사고, 찌꺼기 밀을 파는 불의를 행하며, 율법의 둘째 계명인 이웃 사랑을 저버리게 된 것이었다(암8:5-6). 그것은 곧 정의와 살림의 결핍이었다.

가난에 찌들리게 되는 것은 살림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그것이 가난의 문제이다...예수님은 살림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 살림의 상태에서 가난이란 없다...[예수님 시대의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그는 정의를 빼앗겼다... 살림은 인간들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야 함을 요청한다(Wolterstorff, 1983, 77-78).

Wolterstorff는 대자본에 의한 경제적 지배와 착취를 살롬에 반하는 탐욕이라 생각한다. 이 점에서 그는 Sandel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면서, 자유시장을 자본주의 경제의 실재라 믿거나 지배와 착취를 개인적이고 우연한 것이라 여기는 생각을 엄밀한 의미에서 ‘이단적’이라 판단한다(Wolterstorff, 299). 그러므로 살롬 공동체를 갈망하고, 살롬의 부재를 애통해하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개혁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물론자나 관념론자의 극단을 버리고, 기독교 복음에 정통한 사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살롬의 실현을 위한 정의의 추구와 “사회 분석은 종교적으로 [결코] 중립적인 실천이 아니”다(Wolterstorff, 1983: 299).

Wolterstorff는 Sandel이 지적한 비판적 자기 성찰에 덧붙여, 윤리와 분석을 결합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구별하는... 비판적 의식(critical consciousness)”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정의의 문제를 바르게 다뤄야 한다고 말한다(Wolterstorff, 1983: 300). 그는 칼빈의 기독교강요 II. ii. 15에 기초하여 성령님께서서 기독교 문화에서의 선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계신다고 믿는다. 칼빈은 “인간 문화에서 선하고 영속적인 것은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이기 보다는,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보아야만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Wolterstorff, 1983: 274).

그러므로 살롬 공동체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선물이나 은혜로 여겨지는 선한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악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적인 것들이 함께 엉켜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인간이 불의를 저지를 때 그것은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는 것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눈물로 나타난다(Wolterstorff, 1983: 311). 묵인 자, “압제 당하는 자...주린 자...유리하는 빈민...혈벗은 자...골육”(사58:6-7), “고아...과부...나그네”(신10:16 등)를 향한 하나님의 동일시의 사랑

은 깊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대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의에 대한 구약의 선포에서 충격적인 것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 완전하고 안전한 지위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강력한 주장이다”(Wolterstorff, 1983: 291).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자들과 교회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경건과 자선 이상의 섬김이 필요하다”(Ha, 2015: 226). 그것은 바로 압제당하는 자들의 서사성의 회복이다.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들은 사람들은 특권이 박탈된 그들의 입이 되어, 공적인 자리에서 그들의 이야기와 사정이 들려져야 한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잠31:8-9). 이것은 곧 읊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던 때에 보여주었던 변론적 서사성이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잠29:12).

5. 기독교 · 목회상담을 통한 내러티브의 변형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저자 한병철 교수는 생존을 절대화하는 자본주의 경제를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경제가 “더 많은 자본이 더 많은 삶을, 더 많은 삶의 능력을 낳을 거라는 환상을 자양분으로 발전한다”고 지적하였다(한병철, 2012: 112). 이런 삶은 좋은 삶에서 멀어지고, 생존을 위한 히스테리만 남을 것이며, “삶을 감싸던 서사성(Narrativität)은 완전히 벗겨졌고 삶은 생동성(Lebendigkeit)을 잃어버렸다”고 말한다(한병철, 2012: 112-113). 서사성의 탈피는 사회를 원자화시키고 사회성을 마모시켜 공동체를 파편화시키고, 몸, 건강 등 개인 생존과 성능만 극대화하는 성과사회 곧 “도핑사회로 발전한다”고 분석한다(한병철, 2012: 113).

한 교수가 말하는 피로사회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가져온 새로운 형태의 변형으로서, 개별화되고 고립된 인간 주체들이 분열적 피로를 느끼는 사회이다. 분열적 피로를 경험하는 인간은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상태”이며,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다 타서 사라져버린 것이다”(한병철 2012, 67). 거기에서는 자신의 서사적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언어, 친밀감, 공동체와 공동의 삶 전체가 파괴된다. 이 같은 폭력성은 “시스템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며 “내재성의 테러”이다(한병철, 2012: 21). 포스트모던 성과사회는 개별 주체들의 내러티브의 능력 곧 서사성을 파괴하고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내부의 파괴력을 가졌다다는 뜻이다.

뉴욕 대학교의 정치과학자 Stephen Holmes는 개인의 자유를 최상의 정치 사회적 가치로 생각하는 자유주의가 정작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것들 즉 “형제애, 연대성, 조화, 그리고 가장 크게는, 공동체”를 제공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지적한다(Holmes, 1989: 230). 공동체성과 연대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도덕, 정치, 이성적 반성의 통합과 내러티브를 통한 설득이 필요하다. 이론이나 추상적 권리의 호소가 아닌 현장의 경험과 그에 대한 내러티브 곧 이야기하기는 공동체의 구체성과 구성원의 개별적 문제들의 해결 곧 자기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시민적 자유”를 전제로 한다(Sandel, 2008: 316).

듀크 대학교의 신학자이자 윤리학자인 Stanley Hauerwas는 교회와 신학의 관점에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유주의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유된 역사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규칙 체계만 강조한다고 말했다(Hauerwas, 1981: 78). 그의 비판의 핵심은 자유주의가 인간 개개인의 삶에 내재된 내러티브의 개별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시공간의 제한 속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역사를 인지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진실한 이야기를 소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는 개개인의 내러티브를 간과함으로써 거기에 기초한 도덕적 공동

체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한다. 진실한 내러티브가 존재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파편화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Bounds, 1997: 61-62).

Hauerwas가 동성애와 자본주의를 함께 비판하였던 이유는 결혼과 가정이 자녀 출산을 본질로 하여 “시간을 초월하여 지속적 공동체의 실천”을 하는 기관으로 세워졌기 때문이다(Hauerwas, 2000: 49). 결국 여기서의 적(敵)은 교회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닌 외부의 ‘자본주의’이며, 세계적 소비주의는 동성애를 통해 생산자로서의 인간의 몸을 섹스와 쾌락의 유희로 변질시킨 것이다. 결국 동성애는 인간 공동체의 기본단위인 결혼과 가족을 무너뜨림으로써 확대된 인간 공동체를 규제하는 정치적 규율을 해체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본주의의 의도에 충실한 소비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주의가 교회에 들어옴으로써 내러티브가 소통되지 않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최악의 결말 단계에 이르게 되면 교회조차 “사회의 정서를 통제하려고 복음을 사유화”하려 할 것이다(Hauerwas, 1981: 30). Hauerwas가 기대하는 최상의 바람은 기독교 공동체가 기독교적 telos,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수퍼-스토리”에 헌신되어 개개인의 구체적인 이야기로 구성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Hauerwas, 1981: 30).

기독교적 상담을 포함한 목회적 돌봄의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공동체를 통해 중개된 하나님의 이야기와 더불어 통합하도록 하는 것이다(Anderson & Foley, 2012: 122).” 기독교적 돌봄의 상황에서 상담자들은 살롬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기독교 이야기를 규범으로” 혹은 “기독교 이야기를 일차적 해석의 틀로 삼아”야 한다(Anderson & Foley, 2012: 121). 목회와 상담 현장에서 내러티브를 강조할 때 신앙 공동체에 대한 더 강한 소속감,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공감이 일어난다. 그 결과 현재의 내러티브를 넘어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내러티브를 변

형할 수 있으며, 목회자나 상담자는 돌봄 받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내러티브를 확장시켜, 거기서 하나님 당신이 내러티브를 만들어 나가고 계심을 알고 수용케 하는 것이다”(Anderson & Foley, 2012: 123).

이미 기독교의 성경은 그 자체가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의 세속적인 시각을 파괴하는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다(Wolterstorff, 2014: 269). 성경의 내러티브들은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모든 실천에 대해서 근본적인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Wolterstorff, 2014: 269). 성경이 말하는 살롬 속에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그리고 다른 모든 만물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전제하는데, 그것은 곧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정의를 없으면, 즉 이 세계에서 주변부로 밀려나서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고 그들의 목소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살롬은 없다”(Wolterstorff, 2014: 269-270).

미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소외 계층인 한 부모 여성과 아동의 빈곤에 대해 연구한 목회신학자 Pamela D. Couture는 이들의 빈곤에 대한 공동의 책임(shared responsibility)을 실천적 지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Couture, 1995). 실천적 지식이란 공공정책을 통제하는 관료조직이나 전문가들의 체계적 요구대로 따라감으로써 소외된 집단에 대한 냉소성을 강화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부모 엄마들의 직감적 감각으로 자신들의 권한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언어를 선택하고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내러티브가 이웃과 교회를 통해 소통됨으로써 “상황의 복잡성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Couture가 정의하는 공감이란 “무조건적 긍정과 존중”이 아니라, 오히려 “사적, 공적으로 다른 사람의 현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발견하는 능력”이다(Couture, 1995: 65). 이러한 “공감적 수사”(empathic rhetoric)를 통해 사랑과 정의의 가치를 공동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책임분담’이라는 내러티브의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Anton Boisen의 ‘살아있는 인간 문서’를 다시 재해석한 목회신학자 Charles V. Gerkin은 “언어가 세계를 건설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언어가 경험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 경험에 의미를 주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 거주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하였다(Gerkin, 2005: 35). 그에 따르면 목회상담에서는 그런 구체적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진술하는 독특한 언어들이 진정성을 가진 것으로 존중받고 또한 경청되어야 한다. Boisen에 이어 ‘살아있는 인간 망’을 주장하는 밴더빌트 대학교의 Miller-McLemore 역시 서사성의 관점에서 “힘은 침묵하는 자들에게 주어져야만 한다”고 말함으로써 목회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Miller-McLemore, 1996/2005: 46).

그렇다면 2020년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청년실업이나 조기퇴직, 억압적인 노동조건을 겪는 내담자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기독교 상담자는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 기독교 상담자는 이미 그리스도 구원의 수퍼-스토리를 함께 공유한 사람들이며, 아울러 Couture가 말하는 공감적 수사를 통해 청년 개개인의 이야기를 구원과 공동체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어서 이들의 개인적 내러티브가 1:1의 개인 상담의 경계를 지나, 개별적인 목소리가 공동체의 서사로 통합되고, 공동체의 역사의 일부로 회자되며 반영될 때,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개인을 원자화시키는 세상에서, 그나마 선지자들이 꿈꾸던 샬롬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이 땅에서도 싹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닫는 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청년 실업 문제를 비

롯한 빈곤의 문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더 크게 격리시키는 신자본주의적 자유주의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물론 그것은 자신의 자유와 소유, 그에 따른 권력을 일방적으로 독점하려는 인간 내부의 독단적인 이기심과 탐욕이 이용하고 있는 철학적 논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부자를 함께 살게 하셨고, 그 둘 모두를 '만드셨다.' 그렇다면 인간은 최소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마땅하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시도는 여전히 간과되고 있다.

기독교 · 목회 상담은 불순종하여 어그러진 길로 가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가교와 같다. 청년 실업자를 비롯한 박탈된 사회의 계층 혹은 개개인의 내러티브를 표출되게 하고, 경청하고, 공감함으로써 우선 생명의 근거를 확보하고, 구조적인 제도들의 허점들을 공동체의 내러티브로 공유함으로써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우선 그리스도의 몸 속에 속한 기독교청년들의 스토리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이웃 청년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이 경험하는 불공평과 갈등이 상담을 통해 들려지게 하고, 그들이 간헐 사회적 틀에 대한 가설과 이론 형성을 통해 공공화하는 학자로서의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상담자들은 교회와 사회의 다른 어떤 직업군이 갖지 못한 특별한 경청의 기술과 사회적 배제 경험의 원재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

상담자의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위하여 우선 상담자는 신자본주의의 비내러티브적 독단을 인식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살롬 공동체의 이상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신자본주의는 효율성과 성과만을 고집하며, 자본이 되는 것이라면 동성애를 상품으로 만들어서라도 소비주의를 부추기고 쾌락에 잠식되게 하는 비윤리성, 비도덕성을 마다하지 않는다.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다고 해도 그것을 자유의 값비싼 대가로 취급하며 방치함으로써 파편화된 도덕성과 인간의 공동체성을 방치한다. 청년들이 어떤 이야기 속에서 방황하든 그것을 개인의 능력 부족,

적응력 결핍으로 치부할 뿐 공동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에 비해 샬롬 공동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내러티브를 전제로,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가난한 자와 스스로 동일시하시는 하나님의 공감과 명령에 함께 공감의 내러티브를 만들어가는 순종을 실천한다. 개인적이고 구조적인 특권 배제의 경험을 방지하지 않고, 그들의 서사성을 회복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내러티브를 자신의 반성과 정의 추구의 내러티브로 적용함으로써 샬롬 공동체는 공화주의적 이상을 능가하는 사랑과 공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기독교·목회상담은 개별적 상담의 지평을 넘어, 공감적 수사를 통한 책임분담의 내러티브 변형을 시도해야 한다. 그래서 '살아 있는 인간문서'와 '살아 있는 인간망'의 서사성을 소생하게 함으로써 상담을 통한 샬롬 공동체를 실현해 가야 한다. 인간 공동체는 개개인이 속하여 영향을 주고 또 존재의 기반을 제공받는 인간의 관계적 환경이다. 비록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신정국가가 더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나, 현실의 자유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적 환경 속에서,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적어도 이 땅에서 어떤 정의로운 인간 공동체를 추구할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꿈을 꾸며, 기도하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삼렬 (2016). 청년실업 대책의 성격에 관한 연구: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책 비교. 전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 남재량 (2006). 청년실업의 동태적 특성과 정책 시사점. *노동리뷰*, 제2006-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2-33.
- 박상준, 장근호 (2019).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25(4)59-108.
- 성연주, 김지애. (2017). “꿈을 가진 청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161-175.
- 신희천, 장재윤, 이지영. (2008). “대학졸업 청년실업과 정신건강의 관계 -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의 적용: 대학졸업 청년실업과 정신건강의 관계.”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사회연구 Vol.-No.16. 43-75.
- 오재호. (2018). “청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경기연구원. *이슈 & 진단*(338), 1-26.
- 이성균. (2009). 한국사회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 청년실업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9 국제사회학대회, 569-581.
- 이양수. (2008). “혼돈 시대의 민주주의: 공화주의와 삶의 가치.” in Michael Sandel,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김선욱 외 역. 서울: 철학과 현실사, 306-325.
- 최진기. (2019). <https://www.youtube.com/watch?v=vqFaHVeQ8s0>
- 하재성. (2019). “함께 & 즐거워함: 신명기 16장에 나타난 절기의 가족 중심성과 공동체성.” *개혁신학과 교회: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논문집* 제33권, 63-84.
- 한요섭. (2017).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대한 시사점.” 정책연구시리즈 2017-07, 한국개발연구원(KDI).
- Bounds, E. M. (1997). *Coming Together/Coming Apart: Religion, Community, and Modernity*. New York: Routledge.
- Couture, P. (1995). “Single Parents and Poverty: A Challenge to Pastoral Theological Method.” *Pastoral Care and Social Conflict: Essays in Honor of Charles V. Gerkin*. eds. by Pamela D. Couture and

- Rodney J. Hunter. Nashville: Pantheon Press.
- Gerkin, C. V. (2005). "Reclaiming the Living Human Document." *Images of Pastoral Care: Classic Readings*. ed. by Robert C. Dykstra. St. Louis: Chalice Press. (원전 1984년 출판).
- Hauerwas, S. (1981). *A Community of Character: Toward a Constructive Christian Social Ethic*. Noterdam,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Holmes, S. (1989). "The Permanent Structure of Antiliberal Thought." in *Liberalism and the Moral Life*. ed. by N. Rosenblum.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ieselbach T. (2002). *Living on the Edge: An Empirical Analysis on Long-term Youth Unemployment and Social Exclusion in Europe*. University of Bremen. Yuseder Publications No. 3.
- Kieselbach T. (2001). *Youth Unemployment and Social Exclusion: Comparison of Six European Countries*. University of Bremen. Yuseder Publications No. 2.
- Miller-McLemore (2005). "The Living Human Web." *Images of Pastoral Care: Classic Readings*. ed. by Robert C. Dykstra. St. Louis: Chalice Press.
- Neuger, C. C. (2001). *Counseling Women: A Narrative, Pastoral Approa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 Sandel, M. J. (2010) 정의란 무엇인가 (이창신 역, *Justice: What is the Right Thinkg to Do*). 서울: 김영사. (원전 2009년 출판).
- Sandel, M. J. (2008).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김선옥, 강준호, 구영모, 김은희, 박상혁, 최경석 역. *Liberalism and Its Critics*). 서울: 철학과 현실사. (원전 1984년 출판).
- Wolterstorff, N. (1983).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Grand Rapids: Eerdmans.
- Wolterstorff, N. (2014). *살롬을 위한 교육* (신영순, 이민경, 이현민 역, *Educating for Shalom*). 서울: SFC. (원전 2004년 출판).
- <http://blog.naver.com/bschungu/220074655311>에서 2020년 5월 20일 검색.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765947_32531.html에서 2020년 5월 20일 검색.

https://imnews.imbc.com/news/2020/world/article/5768149_32640.html 에서
2020년 5월 22일 검색.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29011008> 에서 2020년
5월 19일 검색.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513000251> 에서 2020년 5월
20일 검색.

<https://www.ajunews.com/view/20200513133944396> 에서 2020년 5월 21일
검색.

<https://www.fnnews.com/news/202005111733501376> 에서 2020년 5월 19일
검색.

<http://www.keis.or.kr/search.do> 에서 2020년 5월 20일 검색.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476632/> 에서 2020년 5월
19일 검색.

https://www.ytn.co.kr/_ln/0102_202005131520493755 에서 2020년 5월 20일
검색.

【 Abstract 】

Communal Justice and Christian–Pastoral Counseling:
Focused on the Recovery of a Narrative

Ha, Jaesung

Korea Theological Seminary (Kos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for Christian or pastoral counselors to pay attention to the high rate of unemployment of young adults amidst the COVID–19 pandemic, and to listen to their individual narratives from the point of social community. Young adults without jobs or in danger of losing them are supposed to speak out candidly about their stories, and the counselors are expected to listen to them with empathy. Unemployment of young adults threatens a continuation of their future life stories. A Christian or pastoral counselor may provide inspiration that young adults desperately need beyond material profits. A narrative as a story–telling has closely to do with the formation of a community as well as its moral values. Justice is the basis of the shalom community that the Israelites in the Bible dreamed of from ancient times. The story of exodus, for example, has formed God’s big narrative of redemption, and influenced the practice of mercy for poor people e.g., widows or orphans. The peaceful community is composed both of the big narrative of God’s redemption and of the individual narratives of practice. As Couture points out, a Christian or pastoral counselor must become familiar with empathic rhetoric so that individual care and social justice can be served for the socially isolated like the young ones of the time.

Key words: social exclusion, narrative, Christian–pastoral counseling, justice, shalom community